

현대시 독자의 감상 과정 및 정서 인식에 대한 인지시학적 접근 연구

-개념적 혼성을 중심으로-

김민지*

-차 례-

1. 서론
2. 독자의 정서 인식에 대한 인지시학적 접근의 가능성
 - 2.1. 정신 공간의 생성 및 연결과 의미의 구성
 - 2.2. 개념적 혼성을 통한 심층적 정서 인식
3. 정서 인식 과정에 대한 인지시학적 분석과 교육적 활용 가능성
 - 3.1. 대상 텍스트 - 「자화상」의 인지시학적 분석 조건
 - 3.2. 독자의 개념적 혼성과 정서 인식의 양상
4. 결론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서의 표현과 체험이라는 시 장르의 본질을 염두에 두어, 이와 관련한 독자의 정서적 능력을 정서적 문식성으로 전제하는 관점을 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독자의 정서 인식 과정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서 인지시학적 접근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시 감상에 대한 교육적 제안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인지시학의 개념인 정신 공간과 개념적 혼성 이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시 교육적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3장에서는 운동주의 「자화상」을 대상 텍스트로 삼아 이에 대한 전문 독자의 감상 과정과 정서 인식을 인지시학의 방법론을 적용해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로 시 교육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인지시학의 방법론적 가능성을, 문학 감상의 주요 주체인 독자에 대한 분석에까지 확장함으로써 학습 독자와 문학 교육의 범주에 인지시학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주제어 : 현대시, 독자, 정서 체험, 정서적 문식성, 인지시학, 정신 공간, 개념적 혼성, 개념 은유

1. 서론

시는 이미지, 비유, 상징 등을 통해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는 장르¹⁾라는 점에서, 시 감상의 주요 목표에 독자와 텍스트 간의 정서적 교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시 텍스트와 독자 간의 정서적 교류는 정서 체험²⁾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어 온 바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정서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독자의 정서적 감응 능력의 성장 가능성과 사회적 소통, 복합적 작용 구조를 전제하는 정서적 문식성을 기반으로 독자의 정서 인식 과정을 밝히고, 그 인식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정서적 문식성의 관점에서는 시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정서적 반응 능력을 크게 인식, 이해, 성찰, 표현이라는 네 가지 영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³⁾으로 보는데, 이는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정서적 반응이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시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정서적 반응 능력을 정서적 문식성으로 보는 관점에 따르며, 그 중에서도 텍스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정서 인식과 이해의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독자의 정서 인식 과정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서 인지시학적 접근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시 감상에 대한 교육적 제안을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인지시학은 인지언어학, 인지의미론에 토대를 둔 이론으로, 이들과

-
- 1) 우한용, 「상상력의 작동구조와 상상력의 교육」, 『국어교육』 9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67면.
 - 2) 문학교육 연구에서 학습자의 정서 체험을 다룬 연구로는 최지현, 「한국근대시 정서 체험의 텍스트 조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구영산, 「시 감상에서 독자의 상상 작용 연구: 정서 체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김남희, 「현대시의 서정적 체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유영희, 「현대시의 정서 체험과 정서 표현 교육」, 『우리말글』 39, 우리말글학회, 2007; 민재원, 「시 읽기 교육에서 정서 체험의 구조와 작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박수현, 「시 텍스트 정서 체험 교육 연구 - 학습 독자의 정서 체험 양상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등을 들 수 있다.
 - 3) 김민지, 「정서적 문식성 중심의 시 감상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28면.

의 변별을 위해 ‘인지시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취(R. Tsur)를 비롯해 레이코프(Lakoff)와 터너(Tunmer), 프리먼(freeman) 등에 의해 문학 연구의 한 방법론으로서 발전되어 왔다. 인지시학이 토대를 두고 있는 인지의미론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인지의미론은 의미가 주체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화와 은유를 바탕으로 한 주체의 인지적 작용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고 그러한 주체의 의미 형성 과정을 탐구한다.⁴⁾ 그리고 이러한 인지의미론에 토대를 둔 인지시학은 인지의미론적 방법을 바탕으로 시 작품을 생산하는 시인의 인지 과정과, 그에 대해 반응하는 독자의 인지 과정을 탐색하여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을 보여 주었다.⁵⁾

인지시학은 주체의 인지 구조가 신체적 감각 및 지향성에 바탕을 둔다고 보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세계에 대한 인간의 신체적 경험으로부터 인지 구조가 유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⁶⁾ 즉, 세계의 다양한 환경에 대해 신체가 일차적으로 반응하고 이러한 반응이 축적되어 영상도식과 같은 인지적·개념적 체계가 구조화되는 것이다. 시인의 작품에 독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신체성에 기반한 독자와 시인의 인지적 체계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여러 주체들의 신체적 경험이 각각 상이하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인지적 작용 과정에서는 또한 주체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각각의 독자가 동일 텍스트에 대해 개별화되고 창조적인 해석을 수행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신체성을 통한 주체의 인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서 체험은 세계에 대한 주체들 간의 공통감각을 경유하는 한편,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생성되는 개별적 특수성과 창조성의 발현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텍스트에 대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독자의 해석과 정서 인식을 텍스트 감상 과정에서 작용하는 독자의 인지 구조에 대한 분석을

4) 이원영·김규훈·윤재웅, 「인지시학 관점의 시 은유 분류 방식 연구」, 『동악어문학』 75, 동악어문학회, 2018, 277면.

5) 신주철,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의 인지시학적 고찰」, 『세계문학비교연구』 48, 세계문학비교학회, 2014, 57-58면.

6) P. Stokwell, 이정화·서소아 역, 『인지시학개론』 *Cognitive Poetics: an Introduction*, 한국문화사, 2009, 23-28면.

통해 확인하고, 나아가 이로부터 교육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인지시학 이론과 관련한 국내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문학 연구에서는 작가의 의미 형성과 형상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정 작가의 시 작품에 주로 적용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⁷⁾ 최근에는 문예 비평 연구에서도 독자에 주목하여 인지시학적 관점을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승철(2014)과 신지원(2015) 등의 논의가 이에 해당하며 작가의 관점이 아닌 독자의 관점에서 텍스트를 이해하고 의미의 형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⁸⁾ 한편 문학교육 연구에서도 인지시학에 대한 관심이 성장하여 왔는데, 최지현(2012)은 ‘문학교육에서 학습자의 문학 이해 및 감상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⁹⁾하며 문학교육 연구에서 인지심리학의 도입을 본격화하였다.¹⁰⁾ 인지시학적 관점을 보다 명시적으로 표방하여 교육적 적용을 모색한 연구로는 인지시학의 주요 개념인 전경과 배경, 정신 공간, 스크립트 등을 통해 동시의 텍스트성을 분석한 이향근(2018)의 논의¹¹⁾와, 개념적 은유와 개념적 환유, 개념적 혼성 이론을 중심으로 운동주의 시를 이해하여 학습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정해권(2017)의 논의¹²⁾, 국내 문학교육에서의 인지시학 연구 중 실제 교실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독자를 고려한 인지시학 도입의 쟁점을 논하고자 한 김민재(2020)의 연구¹³⁾ 등이 이루어져 왔다.

7) 노철, 「시 감상 과정의 인지시학적 분석과 교육적 모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7,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7, 108면.

8) 이승철, 「김광균 시의 결여에 대한 인지시학적 고찰」, 『비평문학』 (53), 한국비평문학회, 2014; 신지원, 「김종삼 시의 여백 형성에 관한 인지시학적 연구」, 『국어문학』 60, 국어문학회, 2015.

9) 최지현, 「문학교육과 인지심리학 -‘문학적 이해’ 개념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37,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10) 김민재, 「경험적 독자 연구로서의 문학교육학에 인지시학 도입의 쟁점과 가능성 -문학적 ‘경험’에 대한 이론화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20, 100면.

11) 이향근, 「인지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동시 문학의 텍스트성」,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0),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8.

12) 정해권, 「시 읽기 교육의 인지시학적 접근 -운동주의 ‘자화상’과 ‘서시’를 활용하여-」, 『언어와 문화』 1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7.

본 연구는 문학교육에서 인지시학적 관점을 취하는 연구가 실제 독자의 해석 과정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¹⁴⁾에 동의하는 바, 독자의 해석과 정서 인식의 과정을 살펴보는 데에 인지시학적 방법을 도입하고자 한다. 노철(2017)에 따르면, 기존의 문학교육 연구 중 독자에 주목하여 인지시학적 관점을 도입한 연구들은 시 텍스트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지 못하다. 또한 실제 독자의 감상과 해석을 자료로 삼고 있지 않아 독자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맥락과 의미의 발현을 살피기보다는 연구자의 추론적 관점에 머무르고 있다.¹⁵⁾ 이에 노철은 독자 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맥락과 의미 발현 과정을 살핌으로써 감상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지시학의 문학교육적 적용에 대한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여, 실제 독자의 감상과 해석 자료를 바탕으로 독자의 다양한 해석과 정서 인식의 과정을 인지시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독자 인지 구조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적 요소를 도출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자의 감상 과정에서 텍스트 해석과 정서 인식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인지시학의 정신 공간 이론 및 개념적 은유, 개념적 혼성의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둘째, 독자가 다양하게 생성·혼성하는 정신 공간에 따라 정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피고,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독자 요소에 근거한 정서 체험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인지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독자 정서 체험 양상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정신 공간과 개념적 혼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독자의 정서 인식 과정을 정신 공간의 생성과 혼성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정서 인식 과정에 대한 인지시학적 분석을 실행할 것이다. 즉, 이는 문학연구와 문학교육 연구의 장에서 독자 요소 분석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으로서 인지시학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실제 독자의 인지적 의미 구성

13) 김민재, 앞의 논문, 2020.

14) 위의 논문.

15) 노철, 앞의 논문, 2017, 109면.

과정을 밝힘으로써 교육의 지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독자의 정서 인식에 대한 인지시학적 접근의 가능성

시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독자는 텍스트에 주어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텍스트 내의 세계를 이해하며, 이를 통해 텍스트 전체가 의미하는 바를 구성해냄으로써 텍스트를 통해 표현되는 정서를 인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자가 텍스트 내의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을 정신 공간 이론과 개념적 은유를 중심으로 밝히고, 이러한 정신 공간의 생성과 혼성을 통해 독자가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고 정서를 심층적으로 인식하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정서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여러 논의들¹⁶⁾과 정서적 문식성에 대한 연구를 참고하여 독자가 시 감상에서 정서를 인식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밝히면 다음과 같다. 시 교육에서의 정서적 문식성은 크게 인식, 이해, 성찰, 표현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정서 코드를 읽고, 소통하고, 표현하는 언어적 능력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는 자신에 대한 이해가 타자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¹⁷⁾한다는 전제 하에 자신과 타자의 정서 모두에 대한 파악을 중시하는 것이며, 정서적 상황을 드러내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자, 정서에 대한 이해가 표현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창의적 표현 능력까지를

16) 정서의 개념에 대한 논의로는 김대행, 「정서의 본질과 구조」, 김대행 외, 『고려시가의 정서』, 개문사, 1995; 고정희, 『고전시가 교육의 탐구-시공간적 거리감, 전유, 정서를 중심으로』, 소명출판, 2013; 민재원, 앞의 논문, 2013 등을 참고하였다.

17) 고정희에 따르면, 리콰르의 ‘분위기’, 하이데거의 ‘기분’, 전통적인 ‘정서’ 개념의 공통점으로 텍스트의 정서는 단지 작가 개인의 심리가 아니라 ‘작가의 감정과 시적 대상의 분위기 사이에서 소통되는 정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독자는 이러한 문학 텍스트의 정서를 전유하는 동안 일정한 기분에 젖은 자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경험하게 되며, 더 정확히 말하자면 독자는 텍스트에 들어온 낯선 작가와 사물의 정서와 소통하는 가운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고정희, 위의 책, 280면.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정서적 문식성의 개념에 기반을 둘 때, 시를 읽는 과정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텍스트 내의 정보들에 대해 일차적으로 발견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해석해내는 과정이다. 텍스트에 표현된 바를 구체화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해석 과정은 텍스트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활성화되는 작용이자, 텍스트에 자리한 타자에게 감정적으로 관여¹⁸⁾하기 위한 일차적인 조건이 된다. 그리고 텍스트의 정서를 심층적으로 인식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독자가 텍스트에 표현된 세계를 얼마나 구체적, 개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이다. 독자가 시의 정서를 인식하고,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 텍스트로부터 유발되는 자신의 정서를 타자의 정서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자의 정서, 즉 텍스트의 정서를 구체적인 의미의 재구성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자가 텍스트에 표현된 세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시학의 정신 공간 이론과 개념적 은유, 개념적 혼성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에 인지시학 이론이 활용된 바와 같이 읽기의 방법론으로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의미 구성 과정에서 작용하는 인지 구조를 확인함으로써 교육적 활용 지점을 발견하고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1. 정신 공간의 생성 및 연결과 의미의 구성

포코니에(G. Fauconnier) 등에 의해 발전된 정신 공간 이론은, 허구의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혹은 다양한 언어 현상인 조건문, 은유 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정신 공간 이론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상호 연결된 정신 공간의 네트워크가 늘어나면서 텍스트에 대한 해석과

18) 제니퍼 로빈슨은 독자가 문학을 읽으면서 등장인물들에게 감정적으로 관여하게 되고, 계속해서 작품을 읽어나가면서 진화하고 변화하는 타자의 감정을 경험하면서 독자 자신의 감정도 진화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처럼 독자가 텍스트에 감정적으로 관여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주의 깊게 읽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J. Robinson, 조선우 역, 『감정, 이성보다 깊은: 감정 그리고 문학·음악·예술에서의 감정의 역할』 *Deeper than reason: emotion and its role in literature, music, and art*, 북코리아, 2015, 226면.

정이 구성된다는 것이다.¹⁹⁾ 이때의 정신 공간이란, 텍스트 입력을 기반으로 구축된 사태에 대한 단기 인지 표상, 또는 텍스트 이해자의 배경 지식,²⁰⁾ 혹은 “국부적인 이해와 행위를 위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때 구성되는 작은 개념적 꾸러미”(Fauconnier & Turner)²¹⁾이다. 달리 말하면, 정신공간은 인간이 세계와 텍스트를 이해할 때 만들어내는 가상의 개념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언어 표현에 수반되는 정신 공간을 탐색하는 것은 작가의 정신 구조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작가의 정신 공간은 그가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여 이해하고 개념화하는가를 보여준다.²²⁾ 즉, 작가가 텍스트를 구성할 때 작용한 인지 구조를 확인하는 데에 정신 공간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독자가 텍스트를 해석하고 이해할 때에도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유추하기 위해 독자의 인지 구조를 바탕으로 한 정신 공간을 생성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텍스트에 내포된 작가의 정신 공간뿐만 아니라, 작가의 인지 구조를 바탕으로 구성된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해 독자가 자신의 인지 구조를 바탕으로 정신 공간을 생성하고 혼성하는 과정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작가 또는 독자가 생성할 수 있는 정신 공간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정신 공간의 구조와 개념적 은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의 정신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공간들의 네트워크의 시작점으로 기능하는, ‘기본 공간(base space)’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텍스트의 기본 공간은 텍스트에 표현되어 있는 세계라고 할 수 있으며, 독자는 먼저 기본 공간에서부터 특정한 언어적 표현인 ‘공간 형성자’²³⁾를 발견함으로써 여러 다른 정신 공간들을 생성하게 되고 그

19) G. Steen & J. Gavins, 양병호 외 역, 『인지시학의 실제비평』 *Cognitive Poetics in Practice*, 한국문화사, 2014, 166면.

20) 위의 책, 16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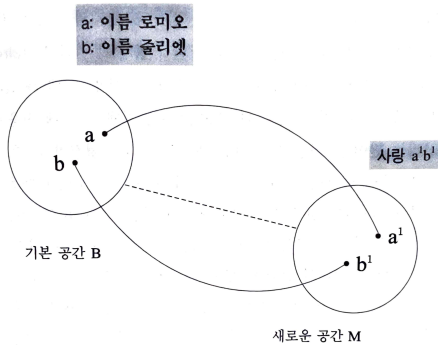
21) 김동환, 「개념적 혼성과 의미구성 양상」, 『언어과학연구』 21, 언어과학회, 2002, 6면.

22) 이향근, 앞의 논문, 2018, 10면.

23) 공간 형성자, 또는 공간 생성자는 새로운 공간 구성을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으로, 각각의 새로운 공간과 구축된 것에서 나온 공간을 연결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공간 형성자를 통해 연결된 공간들 간 관계의 주요 유형으로는 시간(어떤 공간과 다른 공간 사이의 시간적 관계)과 인식적 거리(어떤 공간이 다른 공간과 연관된 존재론적 상태 또는 ‘실제’ 상태)가 있다. G. Steen & J. Gavins,

렇게 생성된 정신 공간들이 엮여 텍스트 전체에서 공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마도 로미오는 줄리엣을 사랑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할 때,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개의 정신 공간을 구성하게 된다. 첫 번째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두 요소를 포함하는 기본 공간(B)으로, 이 기본 공간은 여러 공간들 간 네트워크의 시작점으로 기능하는 공간이다. 두 번째 정신 공간은 공간 형성자 기능을 하는 ‘아마도’라는 단어를 통해 기본 공간으로부터 생겨나는 공간, 즉, ‘로미오’가 ‘줄리엣’을 ‘사랑’하는 상태에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M)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유발된 배경 지식에 의해 구조화된다. 이 새로운 공간은 공간 형성자인 언어적 표현을 통해 생성된 공간이며, 또한 공간 형성자를 통해 기본 공간과 연결된다. 이러한 기본 공간과 새로운 가능성 공간의 관계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기본 공간(B)과 새로운 가능성 공간(M)의 관계 도식²⁴⁾



정신 공간들을 엮어가는 기본적인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텍스트에 표현된 세계 중 독자가 이해하고자 목표하는 특정한 부분(입력 공간2)을 ‘목표 영역’이라고 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 독자가 생성하는 정신 공간을 ‘근원 영역’(입력 공간1)이라고 한다. 그리고 유사

양병호 외 역, 앞의 책, 168면.
24) 위의 책, 167면에서 발췌.

성을 바탕으로 이 두 영역을 연결하는 인지적 작용, 즉 근원 영역으로써 목표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 두 입력 공간을 연결하는 작용을 ‘개념적 사상(conceptual mapping)’이라 한다. 요컨대 독자는 텍스트 내의 세계라는 기본 공간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목표 영역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목표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 목표 영역의 이해에 바탕이 되는 정신 공간인 근원 영역을 생성하며, 그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을 개념적 사상을 통해 연결 지음으로써 의미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²⁵⁾ 그리고 이처럼 개념적 사상을 통해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을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여 연결 짓는 의미 구성의 과정을 ‘개념적 은유’라고 할 수 있다. ‘개념적 은유’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목표 영역과 근원 영역 간의 개념적 사상은 은유의 그것, 즉, 원관념과 보조관념 간의 비유적 관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독자가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목표 영역(원관념)을 발견하고, 그러한 목표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 목표 영역과의 유사성을 통해 이해의 바탕이 되는 근원 영역(보조 관념)을 생성하여 둘을 개념적 사상(비유적 관계)으로써 연결하는 것이 개념적 은유인 것이다.

정신 공간 이론과 개념적 은유를 독자의 시 읽기에 적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독자는 처음 텍스트를 마주한 후 텍스트의 표현이 드러내고 있는 세계를 재구성해야만 그 표현이 내포하는 의미를 유추해 낼 수 있다. 시 텍스트의 표현이 드러내는 세계를 재구성하는 일은 일차적으로 독자가 가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작가, 또는 내포 작가의 위치에서 바라본 세계를 추론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독자는 시인이 세계를 왜, 어떤 사고방식을 통해 그렇게 표현하였는가를 텍스트의 내부에 포함된 자질들과 자신의 맥락 및 배경지식 등을 활용한 인지적 재구성 과정을 통해 추론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텍스트 내에 실현된 세계는 기본 공간으로 작용하게 되며, 독자는 공간 형성자로 기능하는 시의 단어와 표현들을 매개로 텍스트에 내포된 다양한 가능성

25) 개념적 은유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개념 영역을 목표 영역이라 하고 이를 위해 이용하는 개념 영역을 근원 영역이라 한다. 예를 들어 “‘인생은 여행이다’라는 표현에서 ‘인생’이라는 목표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 ‘여행’이라는 근원 영역을 사용하는 것”이다. 정해권, 앞의 논문, 2017, 149면.

의 정신 공간들을 생성하게 된다. 그리고 생성된 정신 공간들 중 목표 영역으로 설정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독자는 근원 영역으로 기능하는 정신 공간을 생성하게 되며, 그 둘을 연결 짓는 개념적 사상을 통해 독자 나름대로 의미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독자가 생성해내는 근원 영역으로서의 정신 공간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의 자질을 기반으로 생성되지만, 독자마다 가진 신체적 경험, 배경지식과 맥락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과 요소가 달라질 수 있다. 인지시학적 분석 방법에 대해 오해를 가진 관점에서는 인지시학의 방법론이 텍스트를 고정된 방향으로 도식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인지시학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독자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독자의 개인적 인지 구조에 따라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향으로 정신 공간의 생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²⁶⁾ 독자의 개인적 인지 구조에 따라 창조적으로 생성되는 정신 공간에 대해서는 ‘개념적 혼성’을 통해 보다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정신 공간은 텍스트 내부에 의존하면서도 독자의 인지 구조가 서로 다름에 따라, 즉 개념적 혼성이 서로 다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일정 부분 창조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성에 의해 독자마다 서로 다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되며, 한편으로는 서로 다른 개념적 혼성을 유발하는 독자 인지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의미 구성과 정서 인식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2.2. 개념적 혼성을 통한 심층적 정서 인식

독자가 생성한 여러 정신 공간은 각 정신 공간 사이의 사상(mapping)을 관여시키는, 즉 두 공간(또는 둘 이상의 공간)의 자질을 함께 묶을 수 있는 인지 기제인 ‘개념적 혼성(conceptual blending)’에 의해 연결되며, 이를 통해 혼성 공간이 형성된다.²⁷⁾ 개념적 혼성은 혼성 공간을 형

26) 이와 관련해 스티븐과 개빈스는 독자에 의해 생성되는 초점 공간의 추가 구조가 독자의 관련된 배경지식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G. Steen & J. Gavins, 앞의 책, 2014, 171-173면.

27) 위의 책, 171면.

성함으로써 텍스트의 이야기체를 확장시키며, 형성된 혼성 공간에는 각각의 정신 공간의 요소들이 부분적, 선택적으로 투사되어 정보의 구조화를 유발한다.

개념적 혼성의 핵심적인 요소는 입력 공간 구축, 공간횡단 사상, 투사라는 세 개의 인지 과정이라 할 수 있다.²⁸⁾ 개념적 혼성을 위해 구축되는 기본적인 두 개의 입력 공간을 입력 공간₁ 과 입력 공간₂ 라고 할 때, 이 두 입력 공간에 개념적 혼성이 작용한 결과로서 생성되는 것이 혼성 공간(blended space)이다. 개념적 혼성의 작용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공간횡단 사상은, 두 공간 사이의 체계적인 대응관계를 의미하며, 아래 [그림 2]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공간횡단 사상의 작용을 나타낸다. 둘째로 총칭 공간(generic space)은 두 입력 공간이 공유하는 공동의 추상적인 구조로, 두 입력 공간 사이의 공간횡단 사상을 한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2]에서 입력 공간₁ 과 입력 공간₂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개의 점으로 표현된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공간이 바로 총칭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혼성 공간은 입력 공간₁ 과 입력 공간₂ 의 구조들이 선택적으로 투사되어 형성되는 공간이다. 이 혼성 공간에는 총칭 공간에 포함되는 입력 공간₁ , ₂ 의 공통 구조뿐만 아니라 각 입력 공간의 부분적 구조들이 선택적으로 포함되며, 또한 두 입력 공간 모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구조를 포함하기도 한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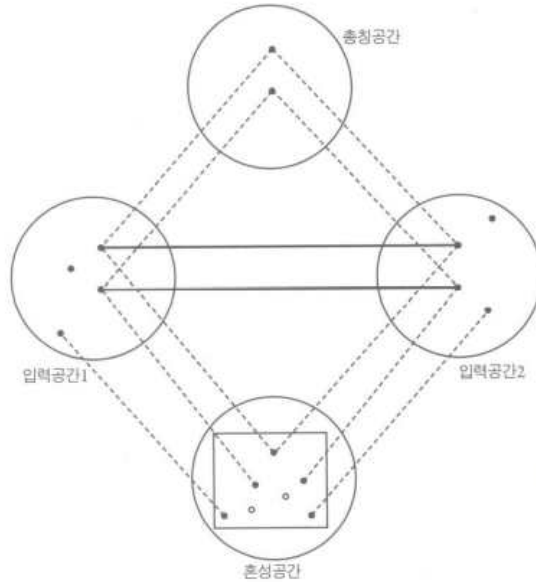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개념적 혼성의 결과로 생성되는 혼성 공간은, 공간 생성의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생성되는 의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개념적 은유가 두 입력 공간(근원 영역, 목표 영역) 간의 대응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개념적 혼성을 통한 혼성 공간은 이 대응 구조뿐만 아니라 서로 대응하지 않는 각 입력 공간의 단독적인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념적 혼성과 개념적 은유를 구분할 수 있다. 두 개의 입력 공간, 두 입력 공간의 공통적인 구조를 포함하는 총칭

28) 개념적 혼성에 대한 설명은 김동환, 앞의 논문, 2002; 김청우, 「시의 개념적 혼성 양상과 상상력의 구조 -김 구용의 「뇌염(腦炎)」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2(9),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을 참고.

29) 두 입력 공간 모두에 포함되지 않는 이 새로운 구조는 [그림 2]에서 점선(공간횡단 사상)으로 연결되지 않은 두 개의 하얀 점으로 표현되어 있다.

공간, 두 입력 공간 사이의 개념적 혼성을 통해 생성된 결과인 혼성 공간을 아우르는 ‘개념적 통합 망’의 구조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개념의 혼성 작용을 나타내는 구조도(개념적 통합 망)³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두 입력 공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단독적으로 혼성 공간에 투사된 요소들이 새로운 의미 구조를 생성하게 됨으로써, 혼성 공간은 다양한 의미가 발현하는 정신 공간으로³¹⁾ 기능하게 된다. 다시 말해, 혼성 공간에 어떠한 요소를 단독적으로 투사시키느냐에 따라 독자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 각 입력 공간의 세부 요소의 양은 인지적 상상력의 출발점이 되며, 정보와

30) 질 포코니에·마크 터너, 김동환·최영호 역,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호, 2009, 78면; 노철, 앞의 논문, 2017, 111면에서 재인용. 여기서 ‘총칭 공간’은 두 입력 공간이 공유하는 요소만을 포함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31) 위의 논문, 111-112면.

지식은 정신 공간을 구성하는 기저 자질로서 의미의 생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독자의 인지 정보의 양이 늘어날수록 혼성 공간의 확장, 즉 의미의 확장이 일어날 확률이 크다. 다시 말해 생성한 정신 공간 내의 요소, 즉 인지 정보가 많을수록 혼성 공간의 형성을 통한 의미 구성의 다양성이 풍부해질 수 있는 것이다.

독자가 텍스트를 읽고 구성하는 텍스트 세계와 의미는 정신 공간과 그것들의 개념적 혼성을 통해 형성된 혼성 공간을 활용한 해석에 의해 구체화되고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독자들의 심층적인 정서 인식은 텍스트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독자들이 텍스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신 공간을 생성하는지, 그 정신 공간들을 어떻게 개념적으로 혼성하여 혼성 공간을 형성하였는지에 대해 인지시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독자의 정서 인식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줄 수 있다. 또한 만약 이를 교육적으로 적용한다면, 심층적인 정서의 인식에 도달한 독자와 그렇지 않은 독자의 정신 공간 및 혼성 공간을 분석하여 각 독자 간의 차이와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파악을 통해 심층적 정서 인식에 도달하지 못한 독자에게 비계를 제시하거나, 혼성 공간이 보다 풍부한 의미의 발생역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3. 정서 인식 과정에 대한 인지시학적 분석과 교육적 활용 가능성

3.1. 대상 텍스트-「자화상」의 인지시학적 분석 조건

본 연구에서는 정신 공간 및 혼성 공간 형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 윤동주의 「자화상」에 대한 전문 독자의 해석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는 본고가 전제하고 있는 교육 대상과, 시에 대한 정서 인식의 과정을 인지시학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몇 가지 조건에 따른 것이다.

본고가 제안하는 인지시학적 분석을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습 독자의 감상 과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므로, 현대시 작품을

읽고 유기적인 의미 구성과 효과적인 쓰기를 수행할 수 있는 중등 학습자인 중학교, 고등학교 학습자를 교육 대상으로 전제하고자 한다.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중학교 1-3학년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9국05-01] 운율, 비유, 상징의 특성과 효과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하고 창작한다.”³²⁾를 통해 이 시기의 학습자들이 시 감상을 위한 기본적인 장르적 지식을 학습함을 알 수 있다. 또, “[9국05-04]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특성과 효과를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9국05-06] 자신의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상화한다.”, “[9국05-08] 근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다른 해석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해석을 평가한다.”, “[9국05-09] 문학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고 공동체의 문제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³³⁾ 등의 성취기준은 학습자로 하여금 작품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을 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효과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 구체화하고, 감상의 결과로 타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것을 지향함을 보여 준다. 이러한 성취기준은 중등 학습자가 인지시학적 분석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감상 내용을 마련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며, 시에 대한 감상의 결과로 타자와 정서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주제적, 개성적 표현이라는 목표에 도달해야 함을 주시시킨다. 이는 또한 본고가 시 감상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제한 정서적 문식성과도 맞닿아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선택 과목 <문학>의 교과 성격에 대해서는, “문학을 통해 인간은 언어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섬세한 언어 감각을 가지게 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한편 다른 존재의 처지를 헤아리고 그 감정에 공감하게 된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상상력으로 창조된 세계를 경험”³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문학이라는 장르의 성격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문학 감상을 통해 경험해야 할 대상으로서 문학교육의 목표로 상정할 수 있다. 만약 문학교육의 목표를 이처럼 ‘언어에 대한 섬세한 인식, 타인의 정서에 대한 공감, 상상적 세계의 경험’으로 둔

32)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5])」, 교육부, 2022, 54면.

33) 위의 글, 54면.

34) 위의 글, 135면.

다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문학 감상의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학습자의 인지적, 정서적 활동 과정을 확인하여 유의미한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지시학적 분석의 방법이 작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독자에 대한 이해에도 적용되어야 함은 이처럼 학습 독자의 인지적, 정서적 활동 과정을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대상 텍스트의 차원을 살펴보면, 작품에 대한 인지시학적 분석의 목적이 독자의 정서 인식 과정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 텍스트가 풍부한 정서적 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운동주의 「자화상」은 비교적 쉬운 시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미워져, 가없어집니다, 그리워집니다」와 같은 다양한 정서 어휘가 포함되어 있어 독자가 텍스트의 정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형성하기 용이한 제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정서 어휘가 아니더라도, 「우물, 밝은 달, 파아란 바람, 가을, 추억」 등의 시어가 독자의 상상력을 통해 감각적 형상화와 정서의 체험이 발현되도록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정서 인식 과정을 살펴보는 데에 있어 효과적인 작품이라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개념적 혼성을 통해 혼성 공간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시에 다양한 정신 공간을 형성하고 이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공간 형성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화상」에는 「그리고, 어쩐지, 도로, 다시, 돌아가다」 등의 언어적 표현이 공간 형성자로서 기능하며, 이를 통해 「사나이」에 대한 다양한 정신 공간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풍부한 공간 형성자를 포함한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자가 각자 다양한 혼성 공간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시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이 풍부해야 하고, 상상력을 활발히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자화상」은 일제강점기라는 특정한 역사적 시기와 관련 지어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앞서 말했듯이 독자가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경험들과 관련된 시어들로 구성되어 있어 신체적 감각과 배경지식을 활용하기에도 용이하다. 또, 「우물」을 들여다보는 「사나이」의 행위와 정서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한 행위와 정서의 변화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적극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혼성 공간을 생성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시의 길이가 너무 짧거나 은유적 형상화의

수준이 너무 높은 경우 독자가 혼성 공간을 충분히 생성하기가 어렵고, 시의 길이가 너무 길 경우 혼성 공간의 생성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화상」은 적절한 형상화 수준과 길이를 담보하고 있는 작품이라 여겨지므로 본 연구의 대상 작품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대상 작품으로 선정한 운동주의 「자화상」에 대해, 전문 독자의 의미 구성 양상, 즉 정신 공간 및 혼성 공간의 생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학습 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적 지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본고가 전제하는 실제 교육의 대상은 중등 학습자이나, 학습 독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상되는 교육적 지점을 타진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독자’로서 전문독자의 의미구성 양상을 분석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자화상」에 대한 전문독자의 해석 내용을 인지시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되, 같은 작품에 대한 각각의 해석 양상이 서로 다른 결론으로 나아가는 경우를 비교하여 학습 독자의 다양성을 전제한 교육적 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념적 혼성의 핵심적인 세 가지 인지 과정인 입력 공간 구축, 공간횡단 사상, 투사를 중심으로 하여 각각의 해석 주체의 의미 구성 과정을 인지시학적으로 밝히고, 이로부터 교육적 시사점을 얻는 데에 목적을 둔다.

3.2. 독자의 개념적 혼성과 정서 인식의 양상

이 절에서는 「자화상」에 대한 전문 독자의 해석에서 입력 공간을 비롯한 정신 공간이 구축되는 양상과, 입력 공간 사이의 공간 횡단 사상을 통해 의미 요소들이 투사된 결과로서 형성된 혼성 공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서 인식에 관여하는 의미 구성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이러한 자기탐색의 과정을 거쳐 도달한 자기성찰의 결정판이「자화상」인 것이다. 앞의 시보다 2년 뒤에 쓰여진 「자화상」은 초월적 자기 관조의 세계에 도달한 느낌마저 주고 있기에, 일견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나, 조용한 자기 몰두의 세계 속에는 비극적 고통의 고통과 서러움을 보다 높은 윤리적 자기실현의 세계로 고양시키려는 시인의 의지가 숨어 있다.

시적 화자는 우물 속에 자연과 어우러진 ‘나’를 보고 미움→가없음→미움→그리움의 변화된 감정을 교차하여 느낀다. 우물 속의 자기를 들여다봄은 운동주가 어둠의 시대에 자기의 존재근거를 묻는 상징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역사적 시공간에 존재하는 자기와 영원성, 초월성을 추구하는 자기와와의 사이에서 자기혐오, 자기연민의 자의식의 분열을 반복하며 1년 넘게 우물 속의 자기를 들여다보고 결국 ‘그리움’이라는 통합된 감정으로 자기를 감싸 안는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구원이며 자기해방인 것이다.³⁵⁾

(나) ‘나’가 들여다본 우물 속은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는 조화로운 세계로 나타난다. 이는 곧 자아와 세계가 합일된 유소년기의 세계와도 같다. 그러니까 ‘나’가 우물을 홀로 찾아가는 것은 “자아가 귀속된 생세계(生世界)를 벗어나서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계를 찾고 싶은” 심정적 갈등 때문이었던 것이다. … 척박한 현실에 부딪쳐 나가야 할 성년의 시기가 왔는데도 여전히 유소년기의 안온함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자아(‘한 사나이’)가 미워져, 시인은 그를 우물 속에 내버려두고 돌아간다. 하지만 곧 ‘그 사나이’가 가없어져서 도로 가 들여다본다. 그러나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가게 되고,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진다는 것이다. 시인은 이처럼 ‘미움 → 가없음 → 미움 → 그리움’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우물가를 떠나 우물 밖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우물 밖의 세계는 말할 것도 없이 타락한 시대의 황폐한 세계이다. 시인은 그런 우물 밖의 세계에서 살기 위해 또는 그 시대와 맞서기 위해, 우물 속의 세계에 애착을 가진 자아를 우물 속에 ‘추억’으로 남겨두고 우물을 떠나 돌아가는 것이다.³⁶⁾

위의 전문 독자 (가)는 「자화상」에 내포된 정서에 대해, “초월적 자기 관조의 세계”에 도달한 듯한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표면 속에 “조용한 자기 몰두의 세계” 속에서 느껴지는 “비극적 고독의 고통, 서러움”과 그것을 “윤리적 자기실현의 세계로 고양시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독자가 자신을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을

35) 이은애, 「운동주의 시세계 연구-「자화상」에서 「참회록」에 이르는 길」, 『한국문예비평연구』 (18),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5, 209-210면.

36) 류양선, 「운동주의 ‘자화상’ 연작과 시정신의 성장과정」, 『한어문교육』 27,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2, 329-330면.

‘초월적 자기 관조’ 또는 ‘조용한 자기 몰두의 세계’로 본 데에는 ‘돌아, 찾아가다, 들여다보다’라는 공간 형성자를 통해 형성된 서로 다른 혼성 공간이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혼성 공간은 ‘산모퉁이’, ‘논가’, ‘외딴 우물’이라는 각각의 입력 공간이 ‘돌아’, ‘찾아가선’, ‘들여다봅니다’라는 공간 형성자를 계기로 연결되며 형성된다. ‘산모퉁이’와 ‘논가’는 외지고 조용한 장소라는 공간적 특성을 지니며, 돌아가고 찾아가는 행위를 통해 그러한 성격과 공간에 대한 지향성이 강화되다가 ‘외딴 우물’이라는 동떨어진 장소와 연결되며 ‘관조’ 또는 ‘몰두’의 세계라는 혼성 공간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초월적 자기 관조’라는 혼성 공간으로 형성하게 된 데에는 각각의 입력 공간의 개념적 혼성 과정에서 ‘잔잔함, 동떨어짐, 벗어남, 평화로움’과 같은 요소들이 투사되었음을 짐작케 하며, 그 결과로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정서의 인식과 관계를 맺게 된다.

한편으로 ‘조용한 자기 몰두의 세계’라는 혼성 공간을 형성하는 경우, 독자가 사상하는 입력 공간은 동일하나 위와 달리 ‘소외됨, 고립됨, 단절됨, 외로움, 대면함, 직시함’ 등의 요소가 보다 두드러지게 투사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형성된 혼성 공간과 관련한 정서의 인식은 ‘비극적 고독, 고통, 서러움’ 등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동일한 입력 공간일지라도 독자가 어떠한 공간 형성자에 주목하고 어떤 요소를 선택하여 투사하는가에 따라 각각 다른 혼성 공간의 형성, 즉 의미 구성이 일어나게 되며 이에 따라 인식되는 정서도 달라짐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다음 연의 ‘달, 구름, 하늘, 파아란 바람, 가을’이 새로운 입력 공간으로서 이어서 위의 정신 공간들과 연결되며, 이러한 혼성 공간의 성격과 전경화되는 의미 요소들이 확장되거나 초점화됨으로써 각각의 인식된 정서가 더욱 구체화될 수 있다.

(나)의 독자는 (가) 독자가 형성한 ‘초월적 자기 관조’의 세계와 유사해 보이면서도 차이를 갖는, 또 다른 혼성 공간을 형성한다. (나) 독자는 우물 속의 세계를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계”이자 “자아와 세계가 합일된 유소년기의 세계”, 즉 이상적인 세계로서의 혼성 공간으로 의미화하였다. 이는 이 독자가 「자화상」을 단독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고, 「소년」이라는 윤희동의 다른 작품과의 연장선상에서 텍스트를 의미화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이 독자의 혼성 공간 형성의 과정에는 이전 작품의 ‘소년’으로서의 시적 자아의 내면이라는 새로운 입력 공간이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소년으로서의 자아’라는 입력 공간은 ‘우물’이라는 입력 공간, ‘밝은 달, 흐르는 구름...’ 등의 입력 공간과 연결되며 ‘이상적이고, 합일되고, 조화로운 세계’라는 혼성 공간을 형성한다. 이는 (가)의 독자가 긍정적 관점에서의 ‘초월적 자기 관조’의 세계라는 혼성 공간을 형성한 것과 유사하면서도, ‘소년으로서의 자아’라는 새로운 입력 공간의 관여를 통해 ‘지향점으로서의 세계’이자 ‘현실과 대치되는 세계’라는 새로운 의미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이후에 이어지는 갈등과 그리움이라는 정서의 인식을 유도한다.

이는 각 입력 공간에서 투사되는 요소의 차이뿐만 아니라 독자의 배경지식이나 해석 맥락 등의 작용이 또한 새로운 혼성 공간의 형성과 의미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해석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적 관점에서 학습 독자의 다양한 정서 인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먼저 텍스트 내에 내포된 정신 공간들을 구축하고 각 정신 공간들에서 학습 독자의 연상에 따라 두드러지는 요소들을 투사하도록 유도한다. 투사된 요소들을 종합한 혼성 공간의 형성을 통해 학습 독자로 하여금 시적 상황을 여러 방식으로 구체화하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일차적으로 텍스트에 내포된 정서를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독자의 요구나 학습 상황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상호텍스트나 비계의 제공을 통해 정신 공간의 범주를 확장 또는 초점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써 일차적으로 형성한 의미와 인식된 정서를 심층적으로 구체화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다) 자기 응시를 가능케 하는 “우물”은 현실과는 단절된 “산 모퉁이를 돌아논 가 외딴” 곳에 자리하고 있고 이때 발견한 또 다른 자아는 화자와는 다른 모습이다. 작품 속에서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서로가 머무르고 있는 공간의 차이로 드러난다. 사나이가 있는 우물 속 공간은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어 화자가 그리워하는 이상적 공간이지만 이제는 “추억처럼” 희미해진 과거의 공간일 뿐이다.

... 이 시에서 주체는 공간의 변화로 인해 병적 나르시시즘을 겪고 있다. 하인즈 코헛에 의하면 삶의 과정에서 환경과 대상이 주는 정서적 부담이 정신구조의 균형을 깨뜨리게 될 때 자기에게 투자된 삶의 에너지가 변형되어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정신적 상태를 병적 나르시시즘이라고 한다. 즉 주체가 주어진 환경의 방해적 요소를 감당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심리적 증상이다. 과거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평화롭고 행복했던 공간이 이제는 산모퉁이 논 가 외딴 곳, 즉 현실과는 동떨어진 우물 속에 “추억처럼”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주체는 소외감과 외톨이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을 되찾고 싶지만 무기력한 화자는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화자가 우물 속 사나이에게 양가적 감정을 표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미 삭막하게 변해 버린 공간 속에 살고 있는 화자는 이상적 공간에 머무르고 있는 사나이를 질투하고 미워도 하지만, 한편으론 그 공간 속 자신을 그리워하고 다시 찾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³⁷⁾

(다)의 독자 역시 현실의 공간과 우물 속 ‘이상적 공간’이자 ‘과거의 공간’ 간의 괴리라는 지점에 주목해 혼성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가) 독자가 ‘산모퉁이’, ‘논가’, ‘우물’이라는 입력 공간에서 ‘고립됨, 단절됨, 대면함’ 등의 요소를 투사하여 ‘조용한 자기 몰두의 세계’라는 혼성 공간을 형성하고 그로부터 부정적 정서를 인식한 것과 비교했을 때, (가) 독자와 동일한 요소를 투사하였고 (나) 독자와 달리 텍스트 외적 맥락을 관여시키지 않았음에도 ‘우물 속’을 ‘이상적 공간’으로서의 혼성 공간으로 의미화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또한 우물 속 공간과 현실 공간의 대비를 통해 ‘병적 나르시시즘’이라는 새로운 의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혼성 공간에 같은 요소를 투사하더라도, 즉 총칭 공간의 요소가 같더라도 독자에 따라 혼성 공간에 최종적으로 포함되는 요소는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독특하고 개별적인 의미의 구성과 정서 인식이 가능해짐을 유추하게끔 한다.

한편, 시 속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잠재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나’라는 입력 공간과 ‘사나이’라는 입력 공간의 연결 양상 또

37) 김소정, 「윤동주 시의 공간과 시의식 연구」, 『국어문학』 73, 국어문학회, 2020, 149-150면.

한 다양한 의미와 정서 인식을 발생시킨다. ‘사나이’라는 입력공간은 ‘미워져 돌아가니’, ‘도로 가 들여다보니’, ‘돌아가다 생각하니’와 같은 공간 형성자를 통해 중층적으로 연결되며, 이에 따라 구체화되는 정서 인식의 결과도 각자 차이를 보인다. (가) 독자의 경우 각각의 공간 형성자를 통해 연결되는 혼성 공간을 ‘자기혐오-자기 연민-자기혐오-그리움’의 교차적 공간으로 의미화하고, 그 결과로 ‘비극적 고통과 고독, 서러움을 더 높은 윤리적 자기실현으로 고양시키려는 의지’와 ‘그리움으로의 통합’으로서 「자화상」에 대한 정서 인식을 구체화하였다. 반면 (나) 독자는 ‘미움-가없음-미움-그리움’으로 진행되는 혼성 공간의 변화를 거쳐, ‘우물 안의 세계’에 대한 체념과 이별의 정서를 인식하였다. (다) 독자의 경우에는 ‘우물 안 세계’와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병적 나르시시즘을 겪는 화자가 ‘소외감과 외톨이 의식’을 느꼈다고 보았으며, 우물 안의 ‘사나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질투’를 포함한 미움으로 구체화하는가 하면 ‘그리움, 다시 찾고 싶은 욕망’으로 전체 시의 정서를 인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입력 공간의 구축과 각각의 입력 공간에서 투사를 통해 형성한 혼성 공간의 개별적 양상, 나아가 형성된 혼성 공간의 종합을 통한 통합적인 의미의 구성에 따라 구체적인 정서의 인식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시 교육의 관점에서 적용한다면, 독자의 의미 구성 과정을 인지시학적 관점에서 세분화하여 각 과정의 방향을 조정하거나 심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서 인식을 구체화하거나 다양화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입력 공간의 구축, 구축된 입력 공간에서 투사할 요소를 선택하는 과정, 투사된 각 요소를 포함한 혼성 공간의 형성, 공간 형성자와 배경지식, 맥락 등의 개입을 통한 혼성 공간의 연결과 교차, 텍스트 전체 맥락에서의 혼성 공간 통합의 과정으로 독자의 의미 구성 과정을 세분화하여, 교육 목표에 따라 학습 독자의 의미 구성 내용을 구체화 또는 개별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양한 정서 인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이다.

4. 결론

시의 본질로서 정서의 체험을 중시하는 시 교육에서는, 그동안 학습자중심주의의 영향력 하에서 학습 독자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정서의 체험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목표의 명징함에 비해 그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교육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여전히 부족해 보임이 현실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독자의 정서 체험 과정을 구체화하고 결과적으로 다양하고 심층적인 정서의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으로서 인지시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독자의 의미 구성 과정과 정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는 인지시학의 정신 공간 이론과 개념적 혼성의 도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3장에서 이를 적용하여 실제 독자의 감상 과정과 정서 인식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인지시학은 그동안 문학교육 연구가 아닌 문학 연구의 관점에서 텍스트 자체 또는 시적 주체나 시인의 의미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서 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인지시학의 방법론적 가능성을, 문학 감상의 구도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또 다른 주체인 독자에 대한 분석에까지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를 통해 학습 독자와 문학교육의 범주에 인지시학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전문 독자의 감상 과정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실제 학습 독자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 대상 텍스트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에서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으나, 이는 향후의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기회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Abstract]

The Study on Cognitive Poetics Approach to the Appreciation Process and Emotional Perception of Contemporary Poetry Readers

-Around Conceptual Blending-

Kim, Minji(Seoul National University)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poetry genre, which is the expression and experience of emotions, this study takes a perspective that presupposes the reader's emotional ability in relation to it as emotional literacy. From this point of vie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 cognitive approach as an analysis method for the reader's emotional recognition process, and to make educational suggestions for poetry appreciation. To this end, Chapter 2 examines the concept of cognitive poetic, mental space, and conceptual blending theory, and propos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it from the perspective of poetry education. In Chapter 3, this study took Yoon Dong-ju's "Self-Portrait" as the target text and analyzed the appreciation process and emotional perception of professional readers by applying the methodology of cognitive poetics, and as a result, the applicability and implications for poetry education were derived. This is an attempt to propose that the theory of cognitive poetics can be applied to the categories of learning readers and literary education by extending the methodological possibilities of cognitive poetics to the analysis of the reader, who is the main subject of literary appreciation.

Key words : modern poetry, readers, emotional experience, emotional literacy, cognitive poetics, mental space, conceptual blending, conceptual metaphor

[참고문헌]

■ 기본자료

- 김소정, 「윤동주 시의 공간과 시의식 연구」, 『국어문학』 73, 국어문학회, 2020, 143-168면.
- 류양선, 「윤동주의 ‘자화상’ 연작과 시정신의 성장과정」, 『한어문교육』 27,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2, 321-347면.
- 이은애, 「윤동주의 시세계 연구 - 「자화상」에서 「참회록」에 이르는 길」, 『한국문예비평 연구』 (18),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5, 201-224.

■ 단행본

- 고정희, 『고전시가 교육의 탐구-시공간적 거리감, 전유, 정서를 중심으로』, 소명출판, 2013.
- Fauconnier, Gilles & Turner, Mark, 김동환·최영호 역,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호, 2009.
- Robinson, Jenefer, 조선우 역, 『감정, 이성보다 깊은: 감정 그리고 문학·음악·예술에서의 감정의 역할』 *Deeper than reason: emotion and its role in literature, music, and art*, 북코리아, 2015.
- Steen, G. & Gavins, J., 양병호 외 역, 『인지시학의 실제비평』 *Cognitive Poetics in Practice*, 한국문화사, 2014.
- Stokwell, Peter, 이정화·서소아 역, 『인지시학개론』 *Cognitive Poetics: an Introduction*, 한국문화사, 2009.

■ 논문 및 기타 자료

- 구영산, 「시 감상에서 독자의 상상 작용 연구: 정서 체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남희, 「현대시의 서정적 체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김대행, 「정서의 본질과 구조」, 김대행 외, 『고려시가의 정서』, 개문사, 1995, 7-32면.
- 김동환, 「개념적 혼성과 의미구성 양상」, 『언어과학연구』 21, 언어과학회, 2002, 45-68면.
- 김민재, 「경험적 독자 연구로서의 문학교육학에 인지시학 도입의 쟁점과 가능성- 문학적 ‘경험’에 대한 이론화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20, 89-132면.
- 김민지, 「정서적 문식성 중심의 시 감상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김청우, 「시의 개념적 혼성 양상과 상상력의 구조 - 김구용의 「뇌염(腦炎)」을 중심으로」,

- 『문화와 융합』 42(9),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455-482면.
- 노철, 「시 감상 과정의 인지시학적 분석과 교육적 모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7,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7, 107-133면.
- 민재원, 「시 읽기 교육에서 정서 체험의 구조와 작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박수현, 「시 텍스트 정서 체험 교육 연구 - 학습 독자의 정서 체험 양상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신주철,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의 인지시학적 고찰」, 『세계문학비교연구』 48, 세계문학비교학회, 2014, 55-72면.
- 신지원, 「김종삼 시의 여백 형성에 관한 인지시학적 연구」, 『국어문학』 60, 국어문학회, 2015, 289-308면.
- 우한용, 「상상력의 작동구조와 상상력의 교육」, 『국어교육』 9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67-90면.
- 유영희, 「현대시의 정서 체험과 정서 표현 교육」, 『우리말글』 39, 우리말글학회, 2007, 139-166면.
- 이승철, 「김광균 시의 결여에 대한 인지시학적 고찰」, 『비평문학』 (53), 한국비평문학회, 2014, 209-240면.
- 이원영·김규훈·윤재용, 「인지시학 관점의 시 은유 분류 방식 연구」, 『동악어문학』 75, 동악어문학회, 2018, 275-305면.
- 이향근, 「인지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동시 문학의 텍스트성」,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0),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8, 1-18면.
- 정해권, 「시 읽기 교육의 인지시학적 접근 -윤동주의 ‘자화상’과 ‘서시’를 활용하여-」, 『언어와 문화』 1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7, 145-165면.
- 최지현, 「한국근대시 정서 체험의 텍스트 조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최지현, 「문학교육과 인지심리학 -‘문학적 이해’ 개념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37,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125-156면.